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7 뉴델리에서 며칠 ②



▶한줄요약
붓다는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을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치고 있었다.

붓다 가르침은 '대기설법'

〈對機說法〉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그대 방금 수행이라 하셨소?

-그렇습니다.

-하하하 우습구려. 어떻게 해서 그대 교단의 무리는 하나같이 수행인이라 자처하는 게요. 그대들의 교단이 무슨 신앙단체라도 되는 게요? 아니지 않소? 그대들의 공부라는 것이 우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고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지 않은가.

-말을 삼가시오. 어찌 수행하지 않고 우주의 이치를 깨칠 수 있겠는가.

-하하하 그래서 그대들은 수행하는 자들이다? 허나 붓다라고 하는 자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그는 사기꾼이요.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신의 흉내를 내려 하고 있단 말이오. 그런 그가 교단을 세워 가난한 이웃의 주머니를 털고 있으니 어찌 말세가 아니겠소.

-더 이상 내 스승을 욕되게 한다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가 머리를 내저었다.

-그리고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은가?

-무슨 소리요?

-그대의 아내가 있는 곳이 아니냐는 말이오? 사랑하는 아내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미 그 소문을 모르는 이 없는데 어찌 여기서 서성거린단 말이오?

난타는 눈을 치뜨고 소리쳤다.

-한량없는 청정행을 닦아 일체중생을 구하기 위해 출가한 사문을 능멸하다니!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외다. 하지만 진정한 대승이 무엇이겠소. 진정한 대승은 범부와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오. 그대 혼자 해탈에 든다면 그건 소승이지 대승은 아닐 것이외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뒤로하고 홀로 자신만의 깨침을 위해 독각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도가 아니라는 말이외다. 대승이란 중생과 아픔을 같이하는 것이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소.

-그래서 나더러 아내에게 돌아가 세속의 복락을 누리란 말인가?

-진정한 대승은 진흙 바닥에 발을 묻고도 정신은 수미산 상봉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시오. 분명한 것은 세속의 생활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오.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출가승의 즐거움도 인정해야 하고 세속의 삶도 인정해야 하오. 중요한 것은 오로지 마음의 출가이기 때문이오. 왜 그대는 몸의 출가만 보고 있소. 그것이 그대의 함정이오. 몸의 출가와 마음의 출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몸의 출가인데 아직도 세속의 미련이 남아 있다면 어찌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겠소. 오히려 불법을 망칠 자는 그런 자들이요. 거룩한 출가는 몸과 마음이 하나인 곳에 있는 것이오.

그 길로 정사로 돌아온 난타는 울었다. 벌써 손타라를 떠나 온 지가 언제였던가. 이제 수행심으로 그녀를 잊을 만한데 무슨 소린가. 그의 말대로 대체 붓다의 자비가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괴롭다면 손타라도 그만큼 괴로웠을 것이다. 너와 나, 나와 너라는 차별이 없었다면 이런 난관이 있을 리 없다. 이제 승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도 남자 여자라는 차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붓다의 경지에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숙제 중의 숙제일 것이다. 아라한의 경지에 들었다 하더라도 여자에 대한 편견은 남아 있기 마련이고 보면 여성 천시의 이유를 들라면 수행승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다.

-여자는 비구들을 타락하게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러나 출가승에게는 말이 된다. 이것이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수행 길에 든 사람들이다. 하지만 수행승도 인간이다. 인간인 이상 본능적인 색욕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붓다는 고심 끝에 오감을 자극하는 매운 채소 다섯 종, 즉 오훈(五葷)마저도 먹지 못하게 했다. 일정한 경지에 가 있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은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출가의 문제 또한 그랬다. 일정한 수준에 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속은 거대한 수도장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언제나 말하고 있다.

-큰불이 사람을 태운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까이할 것이다. 맑은 청풍이 형체가 없어도 이것 또한 잡을 것이다. 뱀이 독을 품고 있지만 오히려 만질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그 실상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붓다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래서 난타는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

-붓다시여, 여인 보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보지 말아라. 설혹 보더라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함께 이야기하더라도 일심으로 법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붓다시여, 여자는 결코 상대해선 안 될 마구니이며 남자에 비해 월등히 저열한 동물이라는 말인데 그럼 붓다의 평등사상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오해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으면 차별에 의한 것이 되겠지만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을 방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비하하는 작태를 나무라는 것이다. 남자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 여자는 자연 뒷전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이나 교양이나 지위 면에 뒤떨어지게 되었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에 자연히 분별이 옅고 마음이 편벽되어 발심을 좀처럼 내기 어렵다. 나는 이것을 여성들에게 반성하라 촉구하는 것이다. 아난이 여자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도 내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출가하는 여자들에게 계율을 약속받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예를 하나 들겠다.

그렇게 말하고 붓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아나빈저 장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은 착하고 아름다웠다. 이웃 나라에 있는 망재장자라는 사람이 그의 딸을 보고는 며느리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나라에는 이상한 법이 있었다. 누구든 다른 나라 여자에게는 장가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법이었다. 만약 법을 어기고 장가를 든다면 그 대가로 육천 명의 바라문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했다. 육천 명의 바라문에게 잔치를 베풀려면 엄청난 재산이 있어야 한다. 망재장자는 며느리가 될 처자가 마음에 무척 들었으므로 그것을 무릅쓰고 결혼시켰다.

결혼식 날 바라문들이 예의도 없이 옷을 벗고 모여들었다. 놀란 며느리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장자가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타일렀지만, 며느리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붓다께서 참괴(慚愧)가 없는 사람은 혈육을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 바라문들은 참괴가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들에게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신부의 인사를 기다리고 있던 바라문들은 신부의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모두가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되자 장자는 걱정이 되었다. 바라문들은 하나같이 세력가들이었음으로 어떤 보복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한 바라문이 그를 찾아왔다. 장자는 그에게 하소연하였다. 바라문은 그런 그에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붓다의 얘기를 꺼냈는데 장자는 그에 대해 얘기하던 며느리의 말이 생각나서 그 장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며느리도 그분 얘기를 자주 하던데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문은 그에 대해 얘기해 준 다음 며느리 더러 그분을 모시게 한다면 일이 해결되리라 하였다.

바라문의 말은 맞았다. 며느리가 붓다를 모셨다는 말을 듣자 붓다의 큰 위력을 알고 있던 바라문들은 모두가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때 붓다는 그에게 일렀다.

-한 여자의 신심이 가정과 일국에 영향을 미쳤다. 여자라고 하여 가벼이 여긴다면 결코 사문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법에 있어 붓다는 평등했고 그 이후로 여인을 천대하는 일은 없었다. 수행승의 잣대는 그 여인이 가졌던 신심 그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붓다는 대승의 입장에 언제나 서 있었고 소승의 입장으로는 그 경지를 넘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펴고 있었다.

-붓다시여. 스승님의 사랑이 그렇게 현실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난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붓다는 더 듣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거사의 질타는 대승의 핵심을 말하고 있음이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미혹의 덩어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 버리는데 보살의 참뜻이 있다고 질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복덕을 쌓기보다는 지옥으로 가 큰 대비심으로 지옥을 천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녀와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독각이 아니라 대승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승과 소승의 차이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붓다시여.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지요?

난타의 물음에 붓다는 온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모두 가르쳤느니라.

나중에야 알았다. 붓다가 대승을 가르쳤어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날 사리풋드라가 이렇게 말했다.

-붓다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붓다의 가르침은 대기설법(對機說法)이기 때문이다.

-대기설법?

-그렇다. 중생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펴고 있었다는 말이다. 대승은 분명히 큰 세계이나 소승을 거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생각해 보아라. 여기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다. 대승은 큰 그릇이요. 소승은 작은 그릇이다. 큰 그릇의 음식은 작은 그릇에 쏟아부을 수는 없다. 흘러넘칠 테니까.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그릇 전체를 더럽히고 바닥까지 더럽힐 것이다. 그렇게 대승 사상은, 수행을 더 닦아야 할 수행승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너에게 비말라처럼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안으라고 가르쳐 보아라. 너는 그대로 진리의 세계를 버리고 가 버렸을 것이다. 붓다는 아직 대승을 안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에 손타라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다. 붓다는 그렇게 대승과 소승 모두를 가르치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섭구나. 대승 사상이 무섭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더욱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합리화였다. 손타라를 향한 그리움. 손타라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이 대승의 경지겠느냐는 생각. 그 생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가 버리자. 대승이 별것인가.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이 대승이다. 그래서인지 잠이 들면 꿈속으로 손타라가 찾아들었다. 그것을 안 붓다는 어느 날 난타를 찾았다.

-너는 향취산에 가본 적이 있느냐?

붓다가 물었다. 〈계속〉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군산 연등축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산 불자 사부대중이 다음과 같이 연등축제를 엽니다. 군산 불교에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과 시민들 그리고 귀하를 이 행사에 초대합니다. 군산 불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일 시 : 5월 14일 오후 6시30분

장 소 : 군산 수송체육공원

주요행사 : 식전공연, 법요식, 제등행진, 산회

부처님오신날 군산시 봉축위원회
위원장 도연
사부대중 합장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제주지사	김용덕		H 010-3697-2441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